

디자인가치 변화에 있어서의 환경요인과 내적 요인 비교연구

A Comparison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in the Change of Design Values

민경우, 채승진

명지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 조형공학과

Kyung-woo Min, Seung-Zin, Chae

Dept. of Industrial Design, Myongji Univ.

Dept. of Industrial Design Eng. KITE

● Keywords : Environment, Social-Cultural Values, Design Values

서론

디자인의 성패는 제품의 특성에 관련된 제반 내용들의 정확한 예측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미래디자인 및 제품에 관련된 예측의 방법으로는 주로 디자이너의 통찰력, 현존제품과 소비자 및 경쟁 시장분석, 인간의 인지능력분석 등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특정 현상·환경 등의 단편적인 데이터나 분석에 의존하여왔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한 미래 디자인트렌드나 가치분석은 피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편협된 미래가치가 제시됨으로써 디자인의 새로운 변화모색과 예측의 방법으로는 적절치 못하였다.

디자인을 사회문화의 표상이라고 전제할때, 디자인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디자인에서의 미래예측은 보다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론

1. 환경, 디자인, 문화

환경은 창출의 원인과 형태와 성격에 따라 자연환경과 인공적 물리환경 및 사회 환경의 셋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는데, 이들 부분환경 체계를 각각 자연계, 조형계, 사회계로 이룰수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생태계의 가장 강력한 작용을 하는 한 인자로서, 자연 생태계를 개발 변형하며, 인간 개체군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은 자연계의 한 구성 부분인 동시에 조형계와 사회계라는 새로운 환경을 창출해 내는 동물이기도 한다.

결국 인간은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뿐만 아니라, 다시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즉 인간과 그의 환경은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게 된다. 그리고 부분환경 상호 간에도 영향을 주고받는 작용관계가 존재한다.

디자인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物)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의 최대 영역인 '가장 바람직한 삶'을 달성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의미한다.

문화란 한 민족의 '삶의 방식 전체'를 내적으로 형성하는 '정신'을 윤곽짓거나 일반화하는 명사로 쓰인다.

인간은 환경 특히 사회적 환경과 끊임없이 교섭한

다. 문화란 바로 그와 같은 교섭의 소산이다. 사회를 형성하는 동물은 있으나 문화를 가진 동물은 없다. 즉 가치, 물질적·비물질적 창조, 표현의 형식 등은 오직 인간사회에서만 발견되는 문화들이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인간환경에서 인간의 의지가 적용된, 인공적인 물리적 환경(조형계)과 사회계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명명할 수 있으며, 이들 환경은 다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소가 되므로, 우리는 문화를 디자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치는 디자인의 환경적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 문화

사회와 문화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사회는 문화없이 성립할 수가 없고, 또한 문화는 사회 속에서만 성장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특징은 또한 문화적 특징에 의해 확산될 수 있고 식별 가능하기도 하다.

사회 인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사회인류학의 주요 하위체계로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 사회구조, 기술경제(학)이 있다.

하위체계라는 것은 적어도 어떻게 한 사회가 부분적으로는 그 자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변화해 가는가를 설명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분석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일련의 변수 또는 제도화한 행동의 측면들을 의미한다(그러나 사회, 인류학자들이 어느 학자에 속하든지 한 학자의 경우, 어느 한가지 하위체계에 특별히 중점을 두기는 할지라도, 필연적으로는 모든 하위체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1) 기술경제(학)

주어진 문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및 도구들뿐만 아니라 사용방식,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가능케 한 과학지식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2) 사회구조와 제도(규범)

'사회구조'라는 용어는 '제도의 의해서 정의된 또는 조절된 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지속적인 태도, 즉 사회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이나 유형'을 말한다.

3) 이데올로기(가치)

이데올로기는 특정집단에 의해 부각되는 조직적인 사고체계를 일컫는다.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는 관념적 영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가치, 사상, 지식, 주제, 철학

과 종교적 믿음, 감정, 윤리적 계율, 세계관, 에토스 등이 포함된다.

위와 같이 사회인류학 이론의 하위체계를 구분하였는데, 각 하위체계를 사회인류학의 한 학파 또는 여러 학파들과 일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어떤 사회문화인류학자도 설득력 있는 분석 및 설명을 하고자 할 때,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하위체계의 변수들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짧게 말해서, 사회인류학자들이 기술경제, 사회구조, 이데올로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문화가 사회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의 구조를 갖고서 분류할때, 인간의 문화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별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용구, 규범, 가치이다. 용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며, 규범은 그 절차이고, 가치는 바라는 목표이다.

1) 용구적 문화

용구적 문화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일정의 방편적인 수단과 그 수단을 생산하는 기술과 관련된 문화이다. 그것은 생활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용구문화는 유용성이 그 기준이 되고 있어서 곧 우열의 평가를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용구적 문화를 구성하는 영역은 대체로 도구, 기계, 기술, 테크놀로지로 분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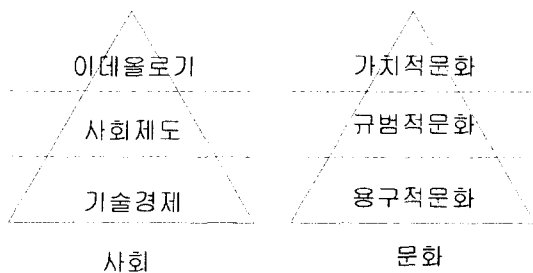
2) 규범적 문화

규범적 문화는 행위의 준칙 또는 절차에 관한 문화이다. 우리는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시인된 행동을 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3) 가치적 문화

가치적 문화는 사회성원이 행동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스럽도록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관념과 관계된 문화를 가리킨다. 이것을 관념적 문화라 해도 좋다. 즉, 행동에 목표와 의미와 해석을 부여해 주는 관념체계를 우리는 가치적 문화라고 부른다. 가치적 문화의 특색은 그것이 인류의 이상과 결부되어 변화한다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통합적 영역인 사회와 문화분야를 그들의 구조를 분류의 준거로 삼아서 살펴 보았을때,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동질적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1> 사회, 문화구조의 연관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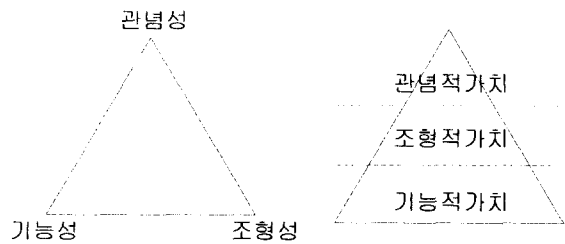
디자인은 대단히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체화된 제품과 연관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고려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폴로스(A.J.Pulos)는, 기본적으로 한 제품은 기술적인 측면, 미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의 세가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그 작용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영역이 확대된다고 하였다.

뢰바하(B.Löbach)는 제품의 기능을, 실제적 기능, 미적인 기능 그리고 상징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의미분별척도법(Semantic differential)에서 더블린(J.Doublin)은 제품에 있어서의 주요차원을 실용성, 사회적 의미, 심미성(U.S.A:Utility, Social meaning, Aesthetics)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척도를 만들고 있다.

한편, 파일(J.F.Pile)은 그의 저서 「디자인」에서, 디자인을 목적, 형태 그리고 의미(Purpose, Form and Meaning)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바, 앞의 세사람의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내용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도표 2> 디자인가치들의 종합

위에서와 같이 어느 제품이나 갖고 있는 특성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세가지 요소는 시대와 지역 그리고 개인의 인성에 따라 사회·문화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이들을 디자인가치라고 규정하여도 좋을 것이며, 이들 세가지 속성과 앞에서 연구한 디자인을 위한 주변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적 가치와의 변화의 상관성을 살피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일 것이다.

결론

이상에서 사회, 문화의 체계를 상호연관시켜 보았으며, 이와 상관되는 디자인 가치의 속성을 다수의 이론가들이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였는 바, 비록 그들이 사용한 어휘는 다를지라도 사회문화체계에서의 구조체계와 동일내지는 유사한 체계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살폈다.

우리는 미래의 디자인가치 예측에서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상에서 미래를 예측해야 할 것이며, 각 요소들간의 가치의 의미의 상관관계를 갖고서 이론적인 유추를 해야 할 것이므로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중심으로 하나의 시간축위에서 연속되어 나타나리라는 연속성에 의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각 시대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디자인 가치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발생의 인과적 연관성을 살피고 아울러 미래에 동일한 조건이 나타날때 유사한 디자인 가치가 나타나리라고 이론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